



기독일보



2024년 5월 3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6호

美 연합감리교회,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UM News

총회에서 692대 51로 결정... 다만 개체교회 자율성은 보장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 40년 동안 금지해 온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개체교회는 동성애자 목사 파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성결혼 개최 및 주례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UMC)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진행 중인 UMC는 1일(현지 시간) 대의원 692명의 압도적 찬성과 51명의 반대로 이 같은 안건 등을 가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UMC는 지난 1984년부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사 후보자를 안수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총회 결정으로 40

년 만에 이 금지 규정이 사라졌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UMC의 성소수자 교인에 대한 오랜 제한을 조용히 해제하고 있는 이번 총회의 추세를 이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승인된 법안은 목회자와 교회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주회하지 않을 권리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이 문제로 개체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UMC 한인총회 총회장이자 LA한인교회의 담임인 이창민 목사는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는 “전통적 입장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감리교회는 전했다.

다만 이 목사는 “그와 동시에 개체교회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 파송과 동성결혼 주례 및 장소 제공 여부에 관한 전적인 권한이 개체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목회자나 개체교

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결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인교회 내 일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유보다 크신’(렘 46)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욱 확장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개체교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UMC 내에서 동성애 등 성성과 관련된 문제에 이견이 커지자, 동성애에 반대하며 ‘전통적’ 입장을 지지해온 교회들이 대거 교단을 탈퇴했다. 그 수가 7,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보다 친동성애로 기운 UMC의 분위기가 이번 총회 결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MC와 한국의 기독교대연합교회(기감)는 서로 교류 관계가 있지만 각 총회의 결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진영 기자

장려금 지급·돌봄 서비스...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위해 앞장

우리나라,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 주요 교회들의 출산장려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출산율인 0.72명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역 펼치고 있는가? 주요 교회들의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그들

안 누적 지급금이 54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첫째의 경우 기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와 넷째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부터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쌍둥이는 500만원, 셋쌍둥이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여의도순복음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는 최근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가 겪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며 “말로만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교회가 함께 그 짐을 나눠지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당진동일교회

당진동일교회(담임 이수훈 목사)는 저출산 극복에 앞장선 모범 교회로 알려져 있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30년 가까이 돌봄 사역에 매진해 교인들의 평균 자녀 수가 2.07명을 기록, 당진 지역 초등학생의 12%가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는 2002년 한 아파트 상가에서 꿈의학교를 개원한 후 초등부를 분리해 2009년 비전스쿨(VCA)을 설립했다. 이후 10년이 넘는 운영을 거쳐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다음세대 세우기 운동공동체’를 공식 출범했다. 2021년 충남형 온종일(마을방과후) 돌봄 활성화 사업에 신청했으나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미성종되고, 학원연합회로

부터 민원을 받는 등 고충도 있었지만, 당진시청 및 충남도청 관계부처와 꾸준히 대화를 거치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2023년 4월 당진시청과 ‘당진형 초등돌봄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비저너리스쿨(Visionary School)로 명칭을 변경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당진시에서 실시한 ‘2024년 민간운영 방과후 돌봄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함으로써 올해 2월 선정됐다.

최근 충남 당진동일교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출산돌봄 실행지도자 모임’에서 당진시 오성환 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충남의 출산율 1위는 당진시라며 당진동일교회의 출산장려운동에 감사의 말을 전했고, 돌봄 시간이 교육청은 오후 4시 30분, 시청은 오후 7시까지인 반면에 당진동일교회는 밤 10시까지라며 진정한 맞춤형 돌봄이라고 밝혔다.

◆고현교회

거제 고현교회(담임 박정곤 목사)는 2002년부터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진행했다. 출산한 가정을 위해 2022년에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각 지원금을 두 배로 더 늘렸다. 여섯째의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총 지급액은 3천 4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300만원에서 10배 가량 늘었다.

박정곤 담임목사는 평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장 28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설교해왔다. 또한 주례 부탁을 받으면 자녀 세 명 이상을 낳을 것을 권고했다. 박 목사는 “아이 그 자체로 축복”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녀와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밖에도 은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의 경우 지난 2015년 가족사역 공동체 내 저출산대책 포럼을 발족하고, 저출산 문제 인식을 갖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보육시설 설치와 결혼예비학교 등을 운영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찾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회 외에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 기관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최근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한사연) 산하 출산장려운동본부(본부장 김춘규 장로, 이하 출산본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결혼자금 2억 무상대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CTS 등 종교계가 중심이 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공동총재 이철·김의식·오정호·장종현·김태영·오정현, 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는 저출생 대책을 위한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를 설립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용적 정책 제안과 실천적 캠페인, 전 국민적 인식개선을 이뤄갈 예정이다. 장요한 기자

기침 총회장 이어 제1부총회장도 직무정지

총무 김일엽 목사 대행 체제로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이종성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정지된 데 이어 직무대행을 맡았던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도 법원에 의해 같은 상황에 놓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홍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 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상황에서, 현 교단 총무인 김일엽 목사가 대행을 맡는다고 한다.

홍 목사는 지난해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등록을 했으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의 자격 조건을 규정한 총회 규약 제6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인데, 오랜 기간 군목으로 있었던 홍 목사의 경력을 가입교회 목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홍 목사는 본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홍 목사에 대해 제1부총회장 자격을 부여한 의결이 이뤄졌고, 단독후보였던 홍 목사는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선관위 결정을 무효화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교단의 이음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정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받아들였다. 이에 제1부총회장이었던 홍석훈 목사가 그 직무대행을 맡게 됐던 것인데, 3개월여 만에 그 역시 직무정행이 정지되고 말았다. 김진영 기자

[인터뷰]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의 ‘월드사역’ >> 3면

KRIM “난민 사역과 박해받는 교회 등 위해 기도 요청” >> 7면

고을일 목사 “믿음이 현실이 되는 예배가 되려면?” >> 22면

www.teddypalace.kr

건설분야의 대표주자 **DL이앤씨(舊 대림산업)**가 시공한

하이엔드 라이프 테디팰리스 리조트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면 테디팰리스가 아닙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클래스가 다른 명품 주거 단지!!

방문고객 **1박 체험 숙박 이벤트** (5.1~5.31)

마지막 6차분 8세대 분양개시

총190세대		
26세대 단독형 (271㎡)	116세대 빌라형 (182㎡)	48세대 빌라형 (207㎡)

주택수 無

중부세 無

보유세 無

1811-0313

방문예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 34번길 204
시공사 DL E&C 신탁사 KB부동산신탁

초대형 호재!!
이곳을 주목하라!

미국 사립 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2026년 제주 상륙**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 (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설립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은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는 PK부터 12학년까지 63학급, 1354명으로 오는 2026년 9월 14일 개교할 예정이다. ... 출처: 제주도민일보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학교승인 #테디팰리스